



Christmas vs 성탄절

산타클로스를 기억 저편의
추억으로 보낸 아이

산타클로스를 여전히
기다리는 아이

특별인터뷰

산타의 달인에게 묻는다.

상식가이드

크리스마스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유흥가이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7가지 방법

구매가이드

크리스마스 선물
어디서 뭐살까?

앱가이드

스마트한 크리스마스
보내기 프로젝트





**MERRY
CHRISTMAS**
CONTENTS
DECEMBER
2nd 2014



- 02 산타클로스를 기억 저편의 추억으로 보낸 아이
- 03 산타클로스를 여전히 기다리는 아이
- 04 [특별인터뷰] 산타의 달인에게 묻는다.
- 06 [상식가이드] 크리스마스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 10 [유흥가이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7가지 방법
- 14 [구매가이드] 크리스마스 선물 어디서 뭐 살까?
- 16 [앱가이드] 스마트한 크리스마스 보내기 프로젝트
- 18 [IT] 2014 어플리케이션박람회 앱소코리아 현장 취재기
- 20 [연예] 신인 배우 이현우 헤어 전문 브랜드 모델 발탁
- 22 [리빙] 제17회 코리아펫쇼 현장취재기
- 23 [문화] 서울시 10대 뉴스는 뭘까?



대표 : 고진석
 발행인/편집인 : 정원훈
 기자 : 앤서니 김, 남상열, 전성민, 김소연, 정주형, 이희재
 편집 : 김주은
 필진 : 장대웅, 유광중, 이상규, 김동엽, 박성준, 문성호, Jay Lee, 윤명진, 김성중, 정현욱, 정상균, 임근태, 배기성

등록번호 : 서울 아02673
 등록일 : 2013년 5월 29일
 발행처 : (주)텐스페이스
 전화 : 070-7168-1111
 팩스 : 02-2168-9887
 홈페이지 : www.koreanjournal.net



12월이면 떠오르는 단어 크 . 리 . 스 . 마 . 스

12월이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연말’이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일 것입니다. 편집회의를 진행하며, 크리스마스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어로 Christmas라고 쓰지요. Christ는 그리스도란 뜻이고, -mas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미사(Mass)를 뜻합니다. 뜻 그대로는 그리스도를 기리는 날이겠지요. Mass는 원래는 가톨릭의 전례인 미사를 뜻하는 말이지만, -mas라는 형태로는 대체로 축일, 축제일을 뜻합니다. 또한 법령상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탄신일이며, 가톨릭에서는 예수 성탄 대축일이라고 하며 보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많이 씁니다.

저희는 종교적 입장에서 12월 25일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크리스마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동심에 관한 두 개의 칼럼 형식 기사로 시작했습니다. ‘산타클로스를 기억 저편의 추억으로 보낸 아이’와 ‘산타클로스를 여전히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세 번째 기사로는 ‘우리아빠 산타 되기 프로젝트’로 근 20년 동안 산타할아버지 대행을 해오며, 여태까지는 자기 자식까지도 속인 아빠를 만나 그 만의 노하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어 가이드 형식으로 상식, 유희, 구매, 스마트앱 소개 등으로 다뤄보았는데요. 상식가이드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을, 유희가이드로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구매가이드로는 ‘크리스마스 선물 어디서 뭐 살까?’를, 앱가이드로는 ‘스마트한 크리스마스 보내기 프로젝트’를 실어보았습니다.

저희 온라인 기사 중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을 기사를 그 뒤에 소개했습니다. IT코너에서는 ‘2014 어플리케이션박람회 앱쇼 코리아 현장 취재기’를 뽑아보았고, 연예코너에서는 신인 배우 이현우의 헤어브랜드 ‘아모스 프로페셔널’ 전속모델 발탁 기사를, 리빙코너에서는 ‘제17회 코리아 펫쇼’ 현장 취재 기사를 언급하였습니다. 문화코너에서는 ‘서울시 10대 뉴스’를 소개하였습니다. 경제코너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및 회계정보와 공사·용역정보 등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소개하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벌써 7번째 테마웹진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해 조금은 가볍게 다뤄보았는데요. 올 한해 코리언저널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리언저널 일동

산타클로스를 기억 저편의 추억으로 보낸 아이

글 정원훈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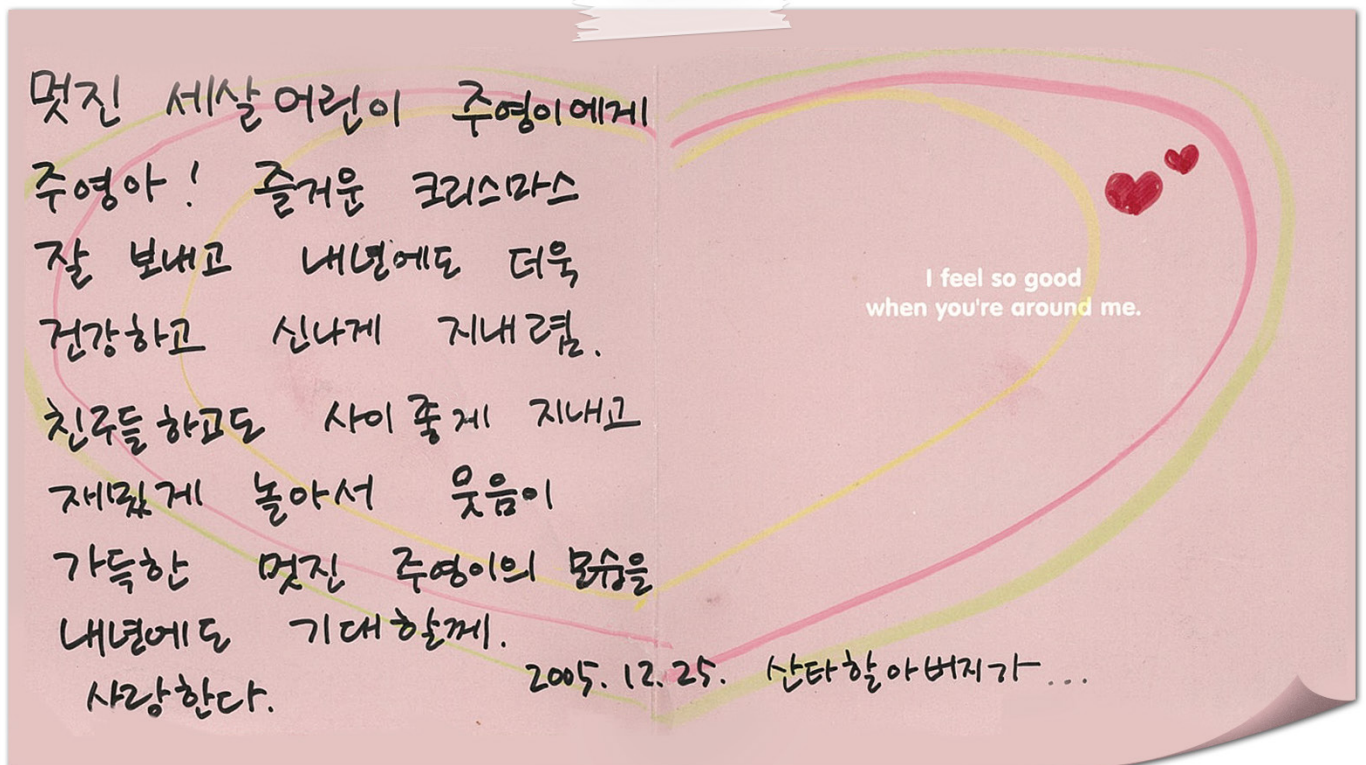
2014년 현재 5학년 한 아이가 있다. 2003년 1월 25일에 태어나 2014년까지 산타를 믿는 아이. 그 아이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또 다른 행복이었으리라!

올 해 12월 그의 부모는 아이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왕따가 될까봐 엄마는 본인들이 산타였다고 고백한다. 그 아이는 눈물을 한없이 흘린다. 어찌면 동심과의 이별이 슬펐으리라! 아이는 힘을 내어 아빠에게 전화한다. “아빠! 고마워요! 산타가 돼 주어서요.”

그러나 12년간의 추억 속에서 엄마 아빠가 말하고 싶고, 함께 나누었던 그 추억은 영원히 변치 않을 텐데 슬픈 감정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십년 이상의 세월. 산타클로스를 통해 아이는 그 꿈을 가꿔 갔으리라. 2005년 12월 25일 엄마와 아빠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엽서를 썼다.

이제 그의 부모도 산타클로스를 보낸다. 하지만, 그간 선물을 준비하고 엽서를 쓰며, 행복해 하는 추억은 가슴 속 깊이 남기고 보내려한다. 시인 백결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기억은 그 많은 경험속에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 지나간 경험이 그의 기억 속에 남는 그 순간, 그 존재의 의미와 그의 미래를 밝혀 주는 것.”



산타클로스를 여전히 기다리는 아이

글 남상열 기자

2014년 현재 2학년인 한 아이가 있다. 2006년 11월 13일에 태어나 2014년 현재까지 이 세상에 산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순수한 아이. 그 아이에게는 크리스마스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나 어릴 적. 크리스마스가 되면 머리맡에 몰래 선물만 두고 가셨던 아버지. 하지만 나는 내 아이에게 진짜 산타가 되어준다. 아이가 산타라는 존재를 알았을 즈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의 산타가 되어주었다. 언젠가는 우리 관우도 편집국장님처럼 아빠가 산타임을 알게 되겠지? 나도 역시 그 때가 되면 편집 국장님처럼 슬픈 감정에 복받쳐 오를 게 뻔하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아이가 많다고 한다. 과연 그런 친구들은 어떠한 경로로 산타의 존재를 미리 알아버린 것일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산타의 존재를 믿는다.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아야 한다며 크리스마스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아들에게 산타의 진실은 올 해가 마지막일 듯싶다. 산타가 아با였다는 사실을 접한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배신감? 고마움? 아무래도 좋다. 나는 내 아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눈을 보으며, 지금껏 아바로서의 행복을 충분히 누렸다.

나도 이젠 산타클로스를 보내며 가슴속 깊이 추억을 남기는 연습을 해야겠다.

관우야! 아바바가 산타라는 것을 알고 기분이 어땠니?

많이 놀랐지?

그래도 아바바는 지금껏 너의 산타가 되면서 참으로 행복했단다.

처음으로 산타 할아버지를 본 너는 아바바를 밀치며 무섭다고 도망쳤었지

왕방울만한 눈물을 흘리며 선물은 챙기지 않던 너!

어느새 너도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아바바만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구

앞으로 계속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사랑한다.





우리아빠산타 되기 프로젝트 “산타 되는거! 어렵지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네 아빠들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바로 아이들을 위한 깜짝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대해서다. 업무 보랴, 연말 모임 참석하랴~ 아빠들은 몸이 세 개라도 모자랄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빠가 직접 산타가 되는 건 어떨까? 크리스마스 이브 마음을 조아리며 아이들 머리맡에 선물만 놓고 오는 가상의 산타가 아닌 아이들 앞에서 덕담도 해주면서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산타가 되어보자. 근 20년 동안 산타할아버지 대행을 해 왔으며, 여태까지 자기 자식까지도 속인 한 아빠를 만나 그만의 노하우를 들어봤다. 이 기사를 읽게 되면 어떤 아빠든 훌륭한 산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추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글 남상열 기자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바빠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대학시절 산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산타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구요, 그 후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에게 직접 산타 할아버지를 대행하고 있죠 ㅋ

Q 그렇다면 본인이 말씀하신 산타계로 발을 내딛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A 보시다시피 저의 몸이 딱 산타몸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죠. 쿨럭~ 제가 대학 때 이벤트를 전공했기 때문에 산타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산타몸매를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벤트 업계의 선배님들에게 수많은 러브콜을 받게 되었죠. 그 뒤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큰 대형 행사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답니다.

Q 다른 아이들은 속여도 자신의 아이들을 속이는 건 정말 어렵는데 말이죠?

A 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작년부터는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하더라구요. 목소리야 할아버지 목소리로 연기한다 치지만.. 아빠만의 채취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올해도 산타대행을 할

생각인데.. 아들에게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아드님이 1학년 때까지 속았다니 참 순수한가 봐요?

A 저의 연기력의 승리죠! (적막)

Q 그럼 여태까지 수많은 산타행사를 해오시면서 에피소드도 그만큼 많았을 거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A 저는 딱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어린이집에서 산타행사를 하기 위해 산타 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어떤 꼬마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갑자기 적막이 흐른 적이 있습니다. 그 꼬마가 동네방네 ‘저기 산타 있다~~’라고 외치고 다녀서 그 안에 1시간 이상 대기한 적이 있었죠. 결국 그 문제의 꼬마아이를 집에 보내고 문제없이 산타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갑자기 그 친구한테 미안해지네요. 그냥 무심코 문을 연 죄밖에 없는데...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는 지금 생각해도 등골에 땀이 흐를 정도인데요. 너무 갑작스레 분장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산타수염이 흘러내리는 거 아닙니까?



Q 이걸 정말 대형사고인데요.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하셨죠?

A 그냥 수염들고 밖으로 출행량을 컷습니다. (적막)
저는 아직까지 수염이 흘러내리는 그 짧은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 선생님 이하 모든 꼬마 친구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데... 그 순간에는 어찌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도 다행인건 도망가는 순간까지 할 아버지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적막)

Q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일반 아빠들은 산타복장을 하고 아이들 앞에 나선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아이들을 속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시죠

A 이걸 공돈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닌데...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산타복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저렴한 산타복도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요 산타복을 구입하시구요. 몸이 호리호리한 아빠라면 패딩을 입고 그 위에 산타복을 입으세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산타할아버지는 뚱뚱한 몸매의 소유자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단 산타복을 입을 때 안에 입은 패딩이 보이지 않도록 단단히 입으셔야 합니다. 옷핀이 있으면 위쪽에 옷핀으로 고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선물은 미리 사놓고 있으셔야 겠죠? 산타복을 구입하면 안에 선물 보따리도 있으니까 보따리 안에 선물을 집어 넣습니다.

Q 이게 노하우인가요?

A 물론 아직 멀었죠!
혹시 아이들에게 들킬게 걱정되신다면 집안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해놓으라고 아내에게 말씀하세요. 조명이 어두우면 어두울 수록 아이들이 아빠를 알아보기 쉽지 않고, 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명을 다 끄고 촛불을 켜 놓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으로 들어가실 때는 최대한 허리를 굽히면서 들어가세요. 진짜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건네세요. 아이들과 마주할 때는 최대한 멀리! 그리고 아빠가 산타가 되는 가장 큰 장점은 아이의 장단점을 훤히 알 수 있다는 거겠죠? 또 산타할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자기 조상님 말씀보다 더 잘 듣는 게 아이들 심성입니다. 아이들 칭찬해 줄 점은 확실히 칭찬해 주시고, 고쳐야 할 점은 조근조근 말씀을 잘 해주세요. 그런데 이쯤에서 아이들은 아빠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아빠로 눈치 챈건 아닌지 당황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저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니까요. 선물을 건네주면 임무는 완성됩니다. 관

한 자신감이 생겨 아이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는 아까 말씀 드렸드시피 수염이 흘러내리거나 아이들이 알아채기 십상이니까요^^

Q 그래도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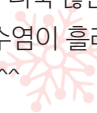
A 그렇다면 새벽을 노리세요. 새벽이라고 해서 꼭두새벽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구요. 아이들이 잠자는 사이에 급습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이들이 한참 자고 있을 시간에 급습을 하면 아이들이 놀라서 이불에 오줌을 싸지도 모르니까요. 아이들이 살짝 잠 들 시기를 노리는 거죠. 잠결에 산타를 보고 놀랄 수도 있지만 산타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Q 혹시 빠진 또 다른 노하우가 또 있으시다면?

A 아! 맞다. 옷을 갈아입는 장소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설마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생각은 아니시겠죠? 무조건 집 밖에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반대로 벗을 때도 집 밖에서 갈아 입으셔야 하구요. 혹은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 그 점은 미리 예감하고 계세요. 추운 것도 우리 아빠들의 몫입니다.

Q 마지막으로 산타를 꿈꾸는 아빠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마다 아이들의 눈을 쳐다봅니다. 뭐 그만큼 여유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나... 아무리 당황된다고 하셔도 아이들 눈은 꼭 쳐다보세요. 이 세상에 그만큼 예쁜 눈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푹푹 찰랑한 눈을 머릿속에는 꼭 기억하세요.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아이들의 그 눈이 떠오르면서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산타 되는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 집니다. 들켜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새 산타할아버지의 품에 쏙하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 산타작전에 성공하신다면 아빠 자신에게나 아이에게나 최고의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축제로 보내는 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실이 정확한 근거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믿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 기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가치 및 기독교, 천주교에 대한 편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상식을 알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동기로 준비하였다. 물론 이것도 유력한 설이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본다. 글 이희재 기자



첫째, 예수그리스도 탄생일이 12월 25일?

사실 성경 즉 4대 복음(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행해졌지만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3월 21일(춘분), 12월 25일 가운데 하루가 선택되어 보냈다고 한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팔절에 해당되는 9월 말이나 10월 초 경이라고 하기도 하며,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가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기인 4월 초로 보기도 한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누가복음 2장을 든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한 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방목하는 시기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이면 끝난다고 한다. 추운 겨울을 알리는 우기가 시작되면 들판에 있던 양떼를 우리로 데려와서 겨울을 지낸다는 것이다. 이미 겨울이 깊어가고 있는 12월 25일에는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와 있는 목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을까? 처음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결정한 것은 서기 354년이라고 한다. 콘스탄티누스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후대의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 로마의 교회는 전통적인 축제일을 예수의 생일과 동일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당시 미트라숭배(Mitra)와 사투르날리아(Saturnalia)가 매우 광범위하게 대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을 억압하는 대신 동화시키는 방법을 사용, 태양의 재탄생에 비유하여 '세상의 빛'인 예수의 탄생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어 379년부터 동방정교회가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독교가 전파된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한다. 하지만, 동방정교회와 로마 교회가 보는 날짜가 틀린데, 로마 교회 즉 서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의 12월 25일을 지키고, 동방정교회는 우리가 시저라고 말하는 율리우스가 정한 태음력 12월 25일인 1월 7일을 지켜 서방교회보다 13일이 늦다. 2014년 현재도 러시아에서는 스바뜨끼라는 크리스마스 주간을 보낸다.

둘째, 크리스마스 트리는 로마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성탄절의 상징인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즉, 크리스마스 트리(상록수나무)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Yule(태양신으로 알려져 있다)신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상록수가 이교도들에게 생명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이교도들의 생명의 상징인 상록수와 기독교인들의 생명의 상징인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로 통합되어 이뤄진 것이다.

헨리 벤다이크이 쓴 [크리스마스트리 이야기]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일화가 있다. 고대 북유럽인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한 왕자를 제물로 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는데, 영국 선교사 윈프리트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들려 주었다고 한다. 그들에게 숲 속에서 사람을 희생물로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작은 전나무를 집 안에 세워놓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하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전나무를 집 안에 세워놓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전설이다.

또한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루터에 의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그 밑에 상록수가 서 있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루터는 상록수의 끝이 뾰족하여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이 보여 이와 같은 나무를 준비하여 자기 집 방에 세우고 거기에 별과 촛불을 매달아서 장식을 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설이다.



셋째, 산타클로스는 3세기부터 빨간 옷 산타였다?

본래 산타클로스 설화는 3세기말 어린이를 보호하는 소아시아의 성 니콜라스(St. Nicholas)의 이름이 네덜란드어로 san. Nicholas로 발음된 것이 네덜란드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잘못 불려져 성녀를 뜻하는 '산타'가 되어 '산타클로스'라는 애칭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니콜라우스는 한 가난한 집의 세 딸이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못 올리는 딱한 사연을 듣고, 몰래 그 집 굴뚝으로 금 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이것이 벽난로에 걸려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 후 이러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성 니콜라스가 평상시 뽀송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산타클로스가 흰 털이 달린 빨간 옷과 검은 벨트를 두르고, 긴 고깔모자를 쓴 모습은 미국 만화가 토머스 네스트가 1863년 그린 만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1931년의 코카콜라의 광고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연도가 느리므로 대중화가 공헌할 거라 보여진다.

넷째, 캐럴은 기독교 초기부터의 전통이다?

본래 크리스마스 전통중에서 캐럴을 부르는 것은 본래 중세 프랑스에서 둥근 원을 만들어 춤을 추면서 부르던 노래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 원무는 동지 때 가졌던 축제에서 사용한 기독교를 믿지 않은 이교도들의 무곡이었다고 한다. 춤을 출 때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 캐럴을 가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형식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캐럴의 주요성은 그 음악의 화성에 있지 않고 선율과 리듬에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캐럴은 즐거운 노래로 된 것이 특징이고 대중에게 많이 불리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다섯째, 크리스마스에는 전 세계가 공휴일이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와 서구문명이 퍼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리는 명절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법정 명칭은 '기독탄신일'이나 관용적으로는 '성탄절'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며, 대한민국의 대부분 학교들은 크리스마스 즈음에 겨울 방학을 시작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며,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일본과 북한의 경우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다. 대만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날짜가 제한절이어서 공휴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오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믿는 직장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면에서 배려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축제라 할 수 있다. 정통 근본주의 기독교주의자들은 어느 날짜가 정확하지 논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래나 논쟁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우리같은 일반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진 본래의 의미나 취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유래와 같이 '화합과 사랑의 축제'로서 크리스마스를 기리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7가지 방법

글 앤서니 기자

제2차 새마을미팅프로젝트 신촌산타마을

2014.12.20
토요일 신촌연세로

청춘남녀 1,000명 모집!

솔로청춘남녀 1,000명이 신촌 한자리에!
3시간동안 맛있는 식사도 즐기고
따뜻한 인연도 만나보세요.

신촌산타마을은 솔로 청춘남녀 1,000명이
신촌에 모여 3시간 동안 맛있는 식사도 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미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미프

SANTA
FREE HUG
CHALLENGE

신촌의 일일 산타가 되어 프리허그로 온기를 나눠 보세요.
당신의 프리허그 세번이면 신촌 연세로가 따뜻해집니다.

주최 Soemip

후원 H 서대문구

한국소셜메스티벌협회

새마을미팅프로젝트, '새미프 신촌 산타마을' 200명 추가 모집

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최되는 1,000명 미팅 프로젝트 '새미프 신촌 산타마을'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지난 4일 이 행사를 주최하는 새마을미팅프로젝트는 '청춘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미팅 행사가 12월 20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신촌 산타마을'행사는 싱글남녀 500명씩 총 1,000명을 모집하며 모집 하루 만에 마감되었다. 현재는 대기자만 신청할 수 있는 상태다. 이후 주최 측은 추가모집을 위한 좌석 마련을 위해 '제휴음식점'을 추가 섭외하겠다고 공고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오늘 4시부터 총 2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미리 일일산타의 참가비를 결제하도록 하고 남녀를 동일하게 모집하여 성비를 1:1로 맞췄다. 행사시간에는 신촌의 제휴된 가게들을 자유롭게 방문하며 맛집탐방을 하고 남녀 2:2 미팅을 하는 방식으로 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새미프의 손승우 대표는 "실제 행사가 당일 상가의 매출로 이어지고 제휴가게는 최소 수백 명의 참가자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효과를 얻는다. 또한 1,000명의 참가자들이 행사 이후 소풍이나 애프터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마치콘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소자화, 만혼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마치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촌의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와 함께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컨셉의 '트릭아트 포토존'이 설치되고 아이스버킷챌린지를 표방하여 주위에 온기를 나눠준다는 컨셉의 '산타 프리허그 챌린지'도 진행된다.

KAL호텔, 24일~25일 ‘크리스마스 캐롤 디너 특선뷔페’ 이벤트 진행

제주KAL호텔 ‘크리스마스 디너 특선뷔페’는 24일~25일 양일간 17:30~21:30까지 특선 뷔페 2부제로 운영한다. 로비에 장식된 대형트리와 풍선장식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특급 세프의 정성껏 마련한 크리스마스 대표 요리인 칠면조 바베큐구이, 소안심스테이크, 연어웰링턴 등의 스페셜 라이브 요리와 함께 특별 제공한다. 1층 로비에서는 X-Mas를 기념하는 산타할아버지 매직풍선 만들기, 펠러비즈, 인형과 솜사탕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더불어, 19층 중식당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선뷔페로 신선한 해산물 위주의 엄선된 식재료를 이용한 30여종 뷔페요리와 함께 특별 메뉴로 중국식 갈비튀김과 블랙빈 랍스터테일, 즉석 북경 오리 등 중국 전통요리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양일간 진행되는 디너 특선 뷔페에는 추첨을 통해 객실숙박권, 뷔페권, 케이크 교환권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를 선보인다.



한편, 12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층 상설뷔페는 시간 연장과 19층 중국식 뷔페는 2부 예약제로 운영된다. 서귀포 KAL호텔에서는 24일 18:00~21:30 산타와 함께하는 “X-Mas 이브 특선 뷔페”가 레스토랑과 연회장서 진행된다. 한, 양, 일식 특선메뉴에 크리스마스 스페셜 뷔페 요리가 특별 마련되며 음료BAR(와인, 맥주, 주스)가 운영된다.

또한, 산타클로스 및 뽀에로 퍼포먼스의 매직풍선 만들기, 막대사탕, 기념사진 촬영 등 추첨을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이 증정되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마련한다. 가격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kalhotel.co.kr) 및 제주KAL호텔 ‘한라’ (064-720-6507)과 중국관 ‘심향’ (064-720-6584) 서귀포KAL호텔 살레 (064-730-9681)를 통해 가능하다.

KAL호텔네트워크 소개

“도심형의 Business & Resort, 제주 KAL 호텔”, “자연 친화형의 Family & Resort, 서귀포 KAL 호텔” KAL호텔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제주도에 위치한 특1급 호텔로서 제주KAL호텔(282실)과 서귀포KAL호텔(225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여행 문화의 선도적 역할과 대 고객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한사회복지회, 신한카드와 미혼양육가정 위한 ‘크리스마스 나들이’ 진행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바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마스 나들이에 참석하고 나니, 그동안 아기에게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해준 적이 한번도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앞으로는 집에서라도 아기와 나를 위해 챙겨야겠어요.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아이와 단 둘이 살아가는 한 미혼양육모의 크리스마스 나들이 소감이다.

신한카드 (대표이사 위성호)가 후원하고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이용홍)가 주최하는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13일(토)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미혼양육가정 25가정과 신한카드 고객 및 임직원 자원봉사자 30명이 일대일 매칭이 되어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마다하고 봉사자 손을 꼭 잡은 아기, 낯선지 뒷걸음치다 봉사자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미소를 짓는 아기 등 다양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나들이가 진행되었다. 롯데월드 자유관람 이후 점심식사와 함께 신한카드 자원봉사자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따뜻한 사랑이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신한카드 따뜻한금융 추진팀 김충자 팀장은 “오랫동안 대한사회복지회와 특별한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진행하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싶었다. 특히 올해는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양육가정에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할 수 있어서 뿌듯한 하루였다”며 행사 소감을 전했다.

이 행사는 대한사회복지회와 신한카드가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마련한 ‘14th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복을 전하는 산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홈페이지(<http://lovefund.or.kr>)와 대한사회복지회 경영전략부(02-567-8814)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대한복지회 소개

밝은 세상을 꿈꾸는 사랑의 쉼터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정부에 의해 전쟁고아의 아동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이래 1965년부터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통하여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사회와 가정의 무관심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기들을 양육함은 물론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연결시키는 입양사업과 갈 곳 없는 중증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깊은 상처를 갖게 된 미혼모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미혼모자 시설뿐 아니라 아기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희망과 친구가 되어주는 노인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에 5개의 지부와 23개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하는 전문 사회복지기관이다.

LG전자, '그녀들의 수다' 연말파티 개최



LG전자가 11일 서울 쌍림동 백설요리원에서 2030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녀들의 수다'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LG DIOS 광파오븐'과 '백설 홈메이드 베이커리믹스'가 공동 기획한 이번 행사는 친한 친구 4명이 한 팀을 이뤄 파티음식을 만드는 쿠킹클래스로, 사전 참가 신청한 6개 팀이 참여했다.

이날 LG전자는 DIOS 광파오븐을 활용, 마늘빵을 곁들인 소고기&치즈 롤라드, 살구쪄트니를 곁들인 아몬드 스콘, 베리콤포트를 올린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 집에서 손쉽게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오븐, 그릴, 발효 등 DIOS 광파오븐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조리법을 소개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친한 친구들과 함께 오븐요리도 만들고 재미있는 추억도 쌓는 쿠킹클래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준비하는 데에도 손색없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 DIOS 광파오븐(MA324PTW)은 '오븐'은 물론 전기 그릴, 전자레인지, 식풍건조, 발효, 스팀, 슬로우쿡, 토스트, 건강튀김 등 9가지 주방가전의 기능을 오븐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All-in-One(올인원) 주방가전이다.

또한 국내 오븐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한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 'LG DIOS 광파오븐 전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말하면 해당 재료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알려준다. 또한 요리완료, 물보충필요 등 스마트폰을 통해 오븐 상황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요리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중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에 위치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지난 10월 16일 그랜드 오픈 후 첫 크리스마스를 맞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만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산타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산타와 함께 댄스타임', '산타와 함께 포토타임', 펭귄 캐릭터 '핀코&핀키 포토타임' 등 고객참여 이벤트와 특별한 크리스마스 산타 밴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 기간은 2014년 12월 5일(금) ~ 12월 25일(목)까지이며, 수중 산타 이벤트는 1일 4회(11시, 14시 30분, 17시 30분, 18시 30분/금토일 20시 추가), '핀코&핀키 포토타임'은 1일 2회(14시, 15시 30분), 산타 밴드 공연은 행사 기간 내 총 5회(13일, 14일, 20일, 21일, 25일/오후 1시)에 펼쳐진다. 아쿠아리움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되는 '산타를 이겨라 가위바위보'는 산타와 관람객 전원 동시 가위바위보를 통해 최후의 1인을 선정하고, '산타와 함께 댄스타임'은 캐롤송에 맞춰 최고의 율동상 1인을 선정한다. 각 프로그램 최후의 1인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아쿠아리움 캐릭터 선물 증정한다.

또한, 25년간의 롯데월드 어드벤처 노하우를 바탕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만의 차별화된 크리스마스 산타 밴드 공연도 펼쳐진다. 이처럼 이번 행사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크리스마스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강렬한 레드의 유혹 ‘나이트 종강파티’ 개최

아듀 2014! 솔로들이여 방구석에서 Stand up

크리스마스 데이트 코스를 고민하고 있거나 종강을 맞이한 대학생은 롯데월드 어드벤처로 모여라! 오는 19일(금) 밤 10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는 밤새도록 놀이기구를 실컷 탑승하고 불타는 금요일을 만끽할 수 있는 ‘나이트 종강파티’를 개최한다.

이날은 특별하게 드레스 코드를 ‘포인트 레드’로 정해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의상에 포인트를 준 선착순 500명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돼 있다. 밤새도록 놀이기구를 즐기고 신나는 특집 공연과 나이트 멀티미디어 퍼레이드로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충분하니 19일 금요일은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화끈하게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나이트 파티’에서는 인기 절정 뮤지션들의 음악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우선 감성 보컬 김태우, 귀여운 댄싱머신 박재범을 비롯해 애니메이션크루, 래퍼RP, 락커스빈, 로꼬, 그레이 등과 함께 후끈 달아오른 금요일밤 분위기에 취해보자. 12월 나이트파티 방문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닝자동차, 후지인스탁스와 롯데월드 어드벤처 자유이용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에도 참여 가능하다.

듀렉스, ‘DureX-mas’ 클럽 파티 개최

듀렉스를 판매하는 RB 코리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12일과 20일 각각 부산 서면에 위치한 클럽 그리드, 서울 강남의 클럽 신드롬에서 DureX-mas 클럽 파티를 개최한다. RB 코리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비자자들이 건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DureX-mas 클럽 파티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DureX-mas 클럽 파티는 성인에 한하여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방문 시 현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제품 구매 인증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파티 현장에서는 무료 음료 쿠폰, 듀렉스 상품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마련돼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최근 듀렉스가 남성복 브랜드 더 클래스와 협업해 출시한 콘돔 보관용 주머니가 달린 ‘더 클래스 듀렉스 팬츠’를 입고 클럽 내 듀렉스 부스를 방문하는 남성 참가자에게는 듀렉스

제품으로 이루어진 선물 키트 또는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듀렉스에 대한 퀴즈를 맞히면 박스 자물쇠가 열려 호감 가는 이성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는 ‘듀렉스 러브 박스’ 이벤트를 운영해 커플 매칭을 도울 예정이다.

그 밖에도 입장 시 착용하는 손목 밴드 번호 추첨 이벤트와 건강한 성(性)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은 듀렉스 포춘 쿠키를 나눠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경품이 마련됐다. RB 코리아의 최유리 과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DureX-mas 클럽 파티를 기획했다”며,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을 마련해 알차게 구성한 행사인 만큼 DureX-mas 클럽 파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듀렉스에 대하여

듀렉스는 85년의 역사를 지닌 전세계 판매 1위의 콘돔 브랜드이자, 콘돔, 바디마사지젤, 디바이스 3가지 섹슈얼-웰빙 카테고리를 선도하는 유일한 글로벌 브랜드. 듀렉스의 모든 라텍스 콘돔 제품은 국제표준인 ISO 천연 라텍스 콘돔 제조 및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았으며, 우수한 착용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더 좋은 향기로 전세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듀렉스는 콘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항상 혁신을 시도해 왔다. 세계 최초로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콘돔을 출시한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광고를 집행했다. 또 인간의 성에 관련한 학문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글로벌 섹스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평등 프로젝트’, ‘청년들을 위한 안전한 섹스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 어디서 뭐 살까?

글 앤서니 기자


당신을 위한 애플 전문가

willy's

윌리스에서 20만원 이상
구매하고 애플 제품 받자!

LUCKY DRAW

12월 한달간 윌리스에서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 Mac, iPad를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15년 1월 15일

www.willys.kr

윌리스, 12월 한 달 '메리 크리스마스 기획전' 풍성

12월 한 달간, 애플 사용자를 대상으로 잊지 못할 '메리 크리스마스' 감동 기획전이 열린다. 윌리스는 애플의 인기 디바이스인 아이패드·맥북 에어·아이맥·맥 프로 등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윌리스가 정성껏 준비한 푸짐한 경품이 추가로 제공되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애플 전문매장(전국 26개)을 보유한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 윌리스(대표 공선욱, Willy's)는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자사 매장을 이용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 동안 '산타클로스'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윌리스가 공개한 12월 메리 크리스마스 기획전은 총 4가지다. 전국 26개 윌리스(<http://www.willys.kr/>)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벤트와 일부 매장에서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한정 이벤트의 두 가지 형태로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서울 잠실점과 신사점 그리고 월드타워점의 3곳에서만 참여 가능한 '스페셜 프로모션' 이벤트다. 행사 기간(19일부터 25일까지) 동안 해당 매장 이용 고객(이벤트 상품 구매고객)에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마카롱 브랜드 '피에르 에르메(PIERRE HERME)'의 마카롱이 추가로 제공된다.

두 번째. 전국 26개 윌리스 전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모션' 이벤트다. 기간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구매자(이벤트 상품 구매고객)에게는 고급 천연 밀랍향초가 선물로 제공된다.

추가 선물이 주어지는(첫 번째와 두 번째 해당) 제품은 MacBook Air 11인치&13인치, MacBook Pro Retina 디스플레이

이 13인치&15인치, iMac 21인치&27인치&5K, Mac mini, Mac Pro 등 포함 9종이다.

세 번째. 전국 매장에서 진행되는 '럭키 드로우 프로모션 (<http://me2.do/GGRoqLxT>)' 이벤트다. 상품 구매가격이 총 20만원 이상 일 경우 참여 가능하며, 공정한 추첨을 통해 총 5명에게 맥북 에어 2대, 아이패드 에어 16GB 3대가 제공된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 까지 한 달간이며, 윌리스에서 제품 구매 후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응모된다. 이벤트 제품은 MacBook Air 11인치&13인치, MacBook Pro Retina 디스플레이 13인치&15인치, iMac 21인치&27인치&5K, Mac mini, Mac Pro, 아이패드 등 포함 10종이다.

네 번째. 전국 윌리스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 이벤트다. 구매가격 기준 50만원 이상에 달하는 고객에게는 윌리스가 준비한 파리바게트 상품권(1만원권)과 엔젤리너스 커피 음료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행사 기간은 19일부터 25일이다. 윌리스 관계자는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2014년 성탄시즌기간 동안 윌리스가 고객님께 정성껏 성탄 이벤트를 준비했다. "며,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 윌리스와 함께 올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 하고, 즐거운 2015년 맞이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담았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애플 신제품의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윌리스의 이번 이벤트는 더없이 좋은 구매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 윌리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 프리미엄 스토어와 서비스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애플 디바이스 전문샵이다. 사용자는 애플 컴퓨터와 아이패드, 아이폰·아이팟·액세서리 등의 애플 전 제품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후처리도 이뤄져 애플 사용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페레로로쉐 '크리스마스 트리팩'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이탈리아 정통 프리미엄 초콜릿, 페레로로쉐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황금빛 트리 모양의 '리미티드 에디션, 크리스마스 트리팩(12개입)'을 국내 새롭게 출시했다.

페레로로쉐는 성탄시즌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달콤한 초콜릿을 즐기고 선물하는 데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패키지의 리미티드 에디션 '크리스마스 트리팩'을 선보인다. 해당 아이템은 페레로로쉐 12구가 황금빛 크리스마스 트리 패키지 안에 담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파티 선물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황금빛 페레로로쉐는 고급 견과류인 헤이즐넛과 부드러운 크림, 바삭한 웨하스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이탈리아 정통 초콜릿으로 와인 및 샴페인과도 잘 어울려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며, 황금빛으로 개별 포장되어 크리스마스 파티의 핑거 푸드로 안성맞춤이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페레로로쉐의 리미티드 에디션인 '크리스마스 트리팩'으로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달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자. 페레로로쉐 크리스마스 트리팩은 12월 중순부터 가까운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10,000원이다.



다크엔젤 슈퍼볼룸업브라, 2014 크리스마스 한정 특별 할인행사 및 이벤트 진행

다크엔젤 슈퍼볼룸업브라는 2014 크리스마스 한정 특별 할인행사와 감사 특별 Big Event를 소셜 커머스 위메프(<http://www.wemakeprice.com/>)에서 12월 16일부터 아주 특별하게 진행한다. 빨간색 속옷을 입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컨셉을 살려, 어려움이 많았던 2014년을 보내면서 위메프 고객분들께 복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다크엔젤 볼룸업브라를 가격에 상관없이 3세트 구입하면 정품인증서가 있는 스왈로브스키 모티브 장식의 빨간색 '레드블랙다이아몬드' 볼룸업브라세트(정가 85,000원)를 단돈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

다크엔젤은 최근 호주 대표 백화점 데이빗존스의 대표모델로 선정된 세계적인 톱모델 제시카고메즈를 전속모델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패션과 몸매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다크엔젤 슈퍼볼룸업브라는 한국 여성의 체형에 맞는 설계를 바탕으로 국내 브랜드로는 독보적인 오일 무빙패드를 내장하여 압박 없이 가슴 형태에 맞게 무빙되어 착용감은 편하고 가슴 볼륨은 높여주며, 뛰어난 볼룸업 기능 외에 저중심 설계로 편안하게 가슴을 모으고 30도 입체커브로 밀착감을 높여 고가의 수술 없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가슴 라인을 가질 수 있다.

다크엔젤 마케팅팀은 "지금까지 구매했던 고객들이 끊임없이 판매 요청하고 있어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14년 연말을 맞이하여 '특별 Big Event'를 기획하고 '덧글이벤트' 고객에게도 특별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자연이 만든 레시피,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박스' 이벤트 진행

리얼 내추럴 코스메틱 브랜드 '자연이 만든 레시피(www.recipecosmetics.com)'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기 제품과 신제품 등 정품 3종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박스'를 오는 21일까지 한정 판매하는 것.

구성품에 따라 '오렌지 박스'와 '그린 박스', '핑크 박스' 등 세 가지 종류로 마련된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박스'는 일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7-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이며, 정가 대비 약 70% 저렴한 2만 5천원에 할인 판매된다.

'오렌지 박스'는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비타 C 캡슐 앰플'과 '골든 타임 비타 캡슐 에센스', 촉촉한 입술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스크림 스윙글로즈-오렌지 봉봉'으로 구성됐다.

'그린 박스'에는 '자연이 만든 레시피'의 인기 제품인 '슬로가닉 클렌저 그린티'와 '스프레이 에센스 워터', 또 최근 출시한 '세컨드 퍼펙트 비비'가 세트 구성되어 있으며, '핑크 박스'에는 멀티 수분 씨씨크림인 '체리 블라썸 CC쿠션'과 '원데이 립 타투 핑크', '차차 폼 클렌저 장미차' 등이 들어있다.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박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고 싶은 대상과 간단한 사연, 선물하고 싶은 박스를 골라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5명을 선정하여 해당 박스를 선물로 보내준다.

'자연이 만든 레시피' 관계자는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제품과 신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풍성한 뷰티 박스로 따뜻하고 여유로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마트한 크리스마스 보내기 프로젝트 크리스마스 관련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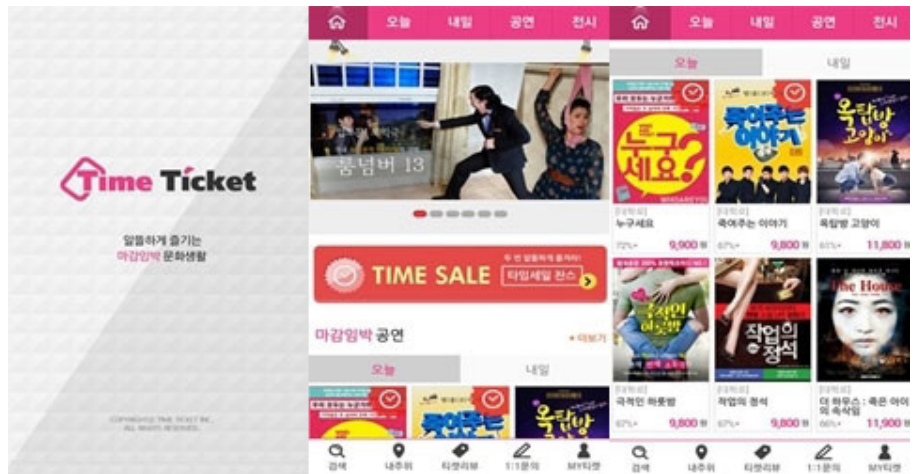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옛날 같지는 않지만 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어딜 가기에든 만만치 않다. 수많은 인파에 움푹달짝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딜 들어가려 해도 30분 이상 기다리기 일쑤다. 그렇다면 조금은 느긋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자.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더욱 스마트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 스마트한 크리스마스 보내기 프로젝트 “크리스마스 관련 앱”을 만나보자. 글 남상열 기자

티켓



타임티켓

개발사: Time Ticket Inc.
가격: 무료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평점: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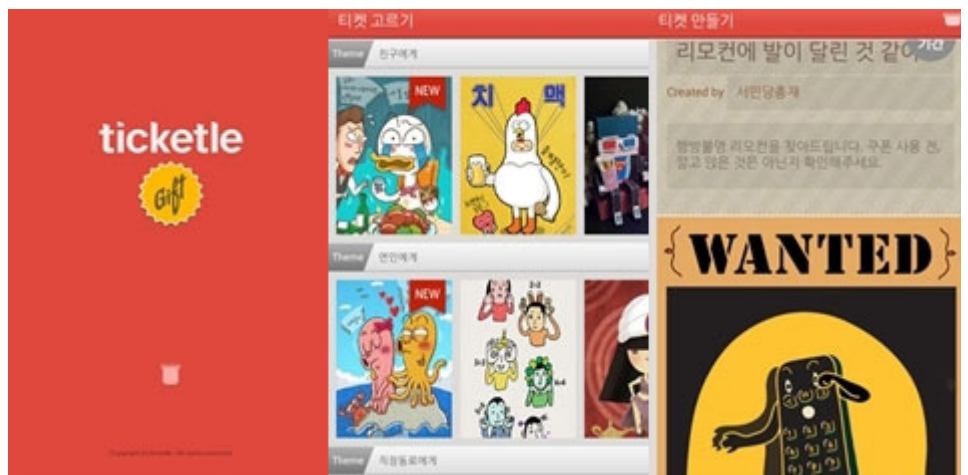
연극, 뮤지컬, 콘서트, 사진전 등 공연 및 전시회의 티켓을 할인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오늘 사서 오늘 즐기는 마감임박 문화생활’이라는 타이틀 그대로 당일이나 다음날 공연되는 티켓은 최고 20%까지 추가로 할인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리뷰까지 볼 수 있어 신뢰도도 높다.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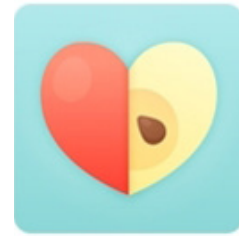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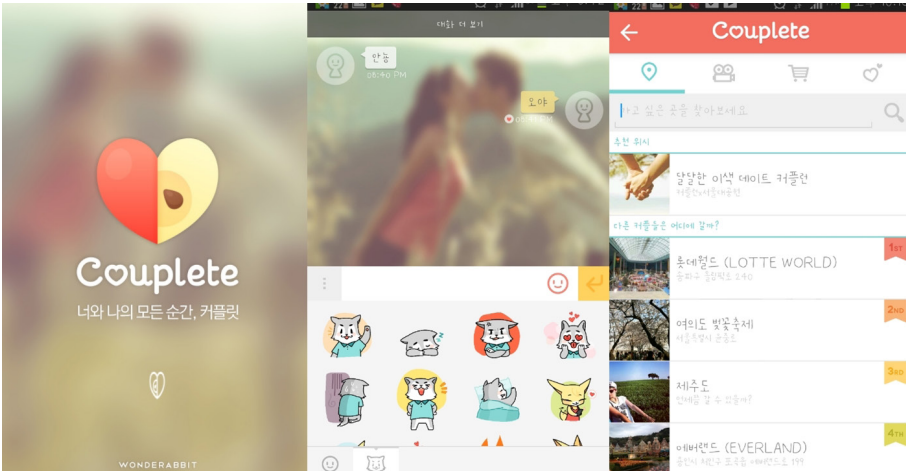


티케틀 기프트

개발사: Ticketle
가격: 무료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평점: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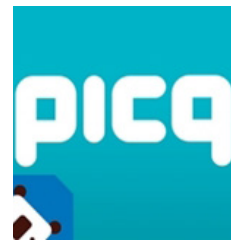
다양한 일러스트 작품을 배경으로 티켓을 제작해 원하는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다. 사용자 사진을 배경으로 나만의 티켓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된 티켓은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공유할 수 있다. 재미있는 문구와 함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전달해보자.



커플릿

개발사: WONDERABBIT Inc.
 가격: 무료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평점: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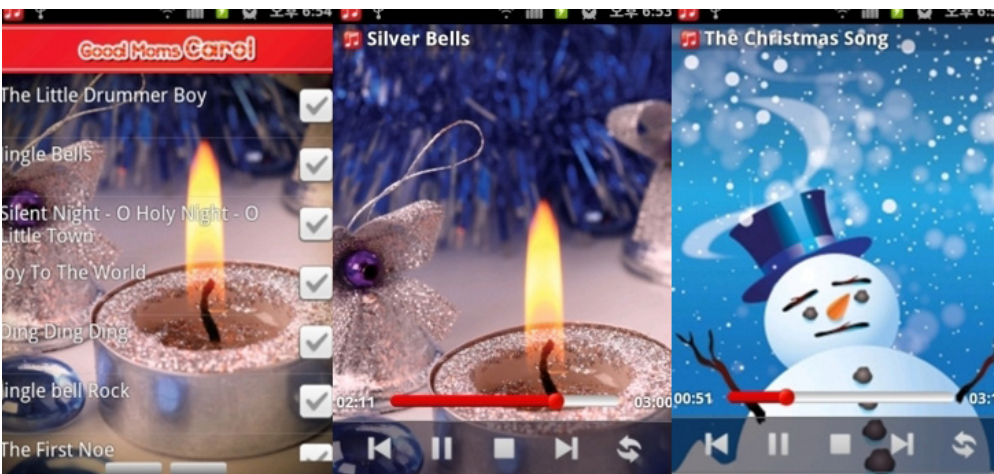
D-Day 카운터와 커플 메신저 등 커플앱에 기대하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둘이 함께 했던 일상들을 기록해 두면 타임라인 형태로 보여주고, 서로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나 둘이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을 수 있는 '위시박스' 기능도 눈에 띈다. 그리고 편지를 작성해 두고 특정 시간이 지나야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러브레터' 기능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Picq(피큐)

개발사: Qooala
 가격: 무료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평점: ★★★★★(4.8)

다양한 사진 배치가 가능한 사진 합치기 및 꾸미기 앱으로서 네모 반듯한 규격화된 배치와 자유배치, 그리고 사진을 원이나 하트 모양 등 도형 형태로 변형시켜 합치는 기능을 제공하며, 편집메뉴에서는 회전이나 크기 변경 등의 간단한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패키지를 다운받거나 사진 테두리 두께 조절도 가능하다.



크리스마스 노래

개발사: PopularMelodies
 가격: 무료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평점: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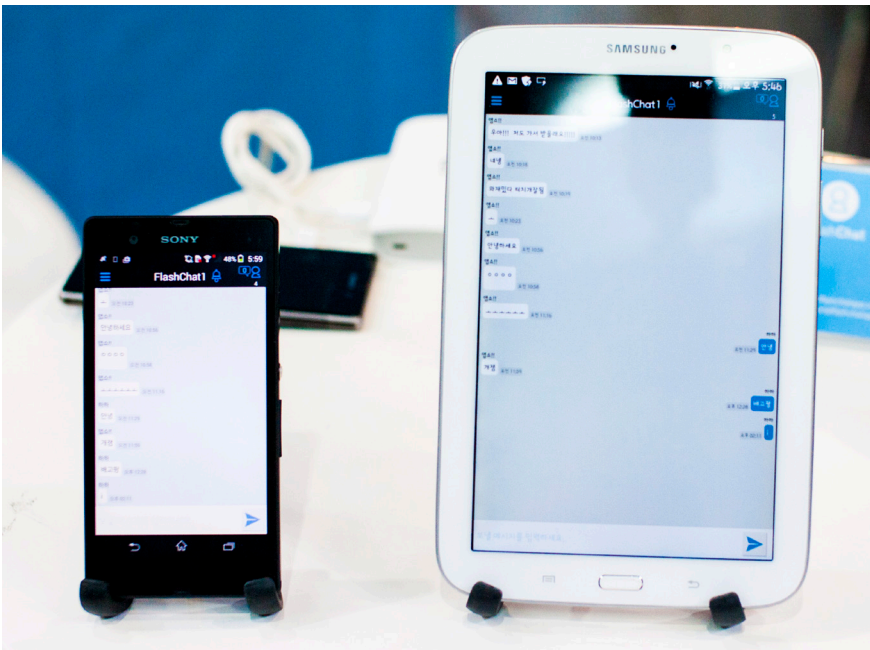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노래 앱은 최고의 무료 선택 곡들이 많으며, 인기 있는 고품질 사운드와 멜로디를 벨소리, 알람, SMS 또는 알람으로 사용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다양한 인기있는 소리에서 찾고, 다양한 멜로디를 친구나 가족이름에 설정하면 색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IT] 2014어플리케이션박람회 앱쇼코리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렸던 2014어플리케이션박람회(앱쇼코리아)는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비롯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앱세서리 생산 업체, 교육기관, 모바일 반응형 웹 개발사, 어플리케이션 관련 창업 업체 등 150개사 업체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앱 중심 박람회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일반 앱 사용자, 모바일 업체 종사자, 앱 투자자, 앱 제작 희망자 등이 박람회를 찾았다. 박람회장에서는 개발자 세미나, 앱 성공 창업자 강연, 모바일 게임대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관람객들을 상대로 직접 제품을 공개하고 시연 가능한 앱 오픈 스튜디오도 열렸다. 이 중 주목받았던 어플리케이션 중 두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글 정주형 기자



제1전시장		제2전시장			
A-01	현장지원센터	C-05	솔루링크	G-01	모전스랩
A-02	카이노스데이즈	C-06	차차코	G-02	비디스넥
A-03	어비팩토리	C-07	ViolinMuseumM	G-03	캔고루
A-04	포덱스(한국인터넷진흥원)	C-08	KB 국민은행	G-04	우리은행
A-05	김창환	C-09	하나금융그룹	G-05	신한금융그룹
A-06	구름랩스	C-10	국무조정실(커런트코리아)	G-06	기업은행
A-07	유즈브레인넷	C-11	엔드리스 드림	G-07	페이플
A-08	어픽스	C-12	제이피	G-08	PRESS CENTER
A-09	파란웹	D-01	fornext	G-09	한결세무법인
A-10	서커스컴퍼니	D-02	트리플렛	H-01	(주)익스
A-11	서머너즈 엔터테인먼트	D-03	365mc휘트니스	H-02	(주)나이스소프트
B-01	포키비언	D-04	한국경제TV	H-03	스트로베리 스튜디오
B-02	넥스트리밍	D-05	라마트리	H-04	인리스튜디오
B-03	그로우소프트	D-06	애드포토	H-05	Lreacher(리처)
B-04	피앤지미디어	D-07	휴게공간	H-06	컨텍스트로직코리아
B-05	구글 플레이	D-08	네트윈	H-07	이니룩스
B-06	KB 국민카드	D-09	바이로봇(드론파이터)	H-08	파르네리 스튜디오
B-07	호연소프트	D-10	토이스미스	H-09	1506호
B-08	동남파워텍	D-11	디바이스 체험존	H-10	가이드북
B-09	엘로 오투오 굿닥	D-12	피씨디렉트	H-11	(주)아우러
B-10	드림포유	D-13	로그엠	H-12	9FACTORY
C-01	휴먼스케이프	D-14	헬셀코리아	I-01	빈스카이
C-02	클라웍스	F-01	cafe	I-03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C-03	앱스튜디오	F-02	BUSINESS CENTER	I-04	케이엔랩스
C-04	구름소프트	F-03	APP OPEN STUDIO	I-05	하나드림텍
				I-06	경품안내처
				I-07	세그웨이 체험존



익명 메신저 어플 “플래시챗(FlashChat)”

넥스트리밍의 익명 메신저 서비스인 “플래시챗 (FlashChat)”은 같은 와이파이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친구목록에 추가하여 단체 또는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같은 와이파이망에 접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직장 동료들이 친구 목록에 보여지고, 학교 와이파이망에서는 학교 친구들이 보여지는 방식이다. 이 앱은 별도의 로그인 과정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이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서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는 그 사용자가 해당 와이파이망을 떠나면 잠시 뒤에 자동으로 삭제되어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A-05

허브-에이아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 앱 “허브 2”

인공지능 비서 앱 ‘허브2’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김창환 학생은 현재 서울시 오산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대학교 입시와 함께 앱 개발을 병행하여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김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간단한 홈페이지 개발을 시작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였다. 혼자서 개발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차차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공지능을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앱을 선택해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앱 개발을 시작하여 프로그래밍과 내부 UI 디자인 등 모든 것을 혼자서 작업하였다. 1년 6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허브’ 앱을 공개하였고, 연구를 계속하여 업그레이드 버전인 현재의 ‘허브2’ 앱에 이르렀다.

‘허브2’는 지능형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아이폰의 ‘시리’, 갤럭시의 ‘S보이스’와 비슷한 서비스이다. 이 앱의 핵심 기술은 ‘자연어 처리 기술’로 ‘너 이름이 뭐야’라는 문장을 말하면 주어진 ‘너’와 목적어인 ‘이름이’, 서술어인 ‘뭐야’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답을 도출하게 된다. 이 방식은 키워드를 인식하는 기술보다 월등한 정확성을 자랑한다.

[연예] 신인배우이현우헤어 전문 브랜드 모델 발탁!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 얻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 아시안 뷰티 전파할 것으로 기대”

배우 이현우가 헤어 전문 브랜드 아모스 프로페셔널의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

훈훈한 외모와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가 최근 진행된 ‘헤어 인 트렌드’ 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브랜드 모델로서 활발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현우는 아모스 트렌드 비주얼 화보 촬영에서 멋스럽게 올린 헤어스타일에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시크하면서도 섹시한 남자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또 다른 사진 속 그는 이와 대비되는 신비로운 컨셉을 연출하고 있는데, 바이올렛으로 브릿지를 넣은 헤어로 부드러우면서도 트렌디한 화보를 완성시키고 있다. 무심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아래를 응시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묘한 설렘을 느끼게 한다.

이에 아모스 프로페셔널측 관계자는 “배우 이현우는 백만불짜리 미소부터 카리스마 있는 눈빛까지 다양한 감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트렌디한 패션감각도 자랑하고 있어 헤어 트렌드를 리딩하고자 하는 아모스의 브랜드 컨셉과 잘 부합된다고 판단, 모델로 발탁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 아시안 뷰티를 전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현우는 지난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남파 요원 ‘리해진’ 역으로 한층 성숙한 연기를 선보이며 차세대 스타로 거듭났으며,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기술자들’에서는 반전 매력을 지닌 천재 해커 ‘종배’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그는 ‘기술자들’ 외에도 2002년 연평도에서 벌어진 해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연평해전’까지 주인공으로 나서며 충무로의 블루칩이자 대세남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리빙] 제17회 코리아펫쇼(KOPET2014) 현장 취재기



‘애완동물 사절’

살아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일반 사람들이야 보고 무심코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엔 눈에 거슬리는 문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전시회가 있어 찾아갔다. 이곳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반려동물의 천국으로 이루어졌다. 양재동 at센터에서 펼쳐졌던 제17회 코리아펫쇼 KOPET2014 (이하 ‘코펫’)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100개사 300부스가 참여한 이번 반려동물 용품박람회인 코펫은 명실 공히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코펫 행사장으로 가는 길부터 예사롭지 않은 풍경들로 가득하다. 강아지 3마리 이상은 기본이요, 최고급 유모차를 탄 반려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제2전시장인 3층으로 올라가면 반려동물의 식품 및 용품 분야로 가득하다. 유기농 식품, 수제간식, 동물약품,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등 사람이 봐도 먹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정갈하고 화려하다. 관람객들로 가득 붐빈 부스에서는 애견미용 시연이 한창이다. 시츄, 푸들 등 종에 따른 기발한 미용 시연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또 특설 무대에서는 우리 강아지 인내심 테스트, 도그 댄스 시범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다시 1층에 있는 제1전시장으로 내려오면 더욱 다양한 품목들로 온 눈이 즐거워진다. 애견 침대, 기능성 화장실, 정글캣타워, 스마트목걸이 등 애완동물로 태어나 이런 호사가 따로 없다. 점점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위시리스트도 더욱 특별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앞으로는 코리아펫쇼에서 다양한 품목과 함께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제18회 코리아펫쇼는 내년 봄에 개최될 예정이다.

글 남상열 기자



[문화] 서울시 10대 뉴스는 뭘까?

글 김소연 기자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는 뭘까? 꼬마버스 타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포장하고 서울의 도로를 누볐던 '타요버스 운행'이 9.7%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12년부터' 14년 11월까지 총 296개소를 늘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위, 당초 목표보다 6개월 앞당겨 200만 TOE를 절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원전하나줄이기'가 3위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4위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달성' (주택) 5위 '서울둘레길 전 구간 조성' (생활) 6위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교통) 7위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환경) 8위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 (복지) 9위 '여성안심택배' (여성) 10위 '시민청 운영' (생활) 등 시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체감형 정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 '타요버스 운행' (1,705표, 9.7%) : 타요버스는 지난 3월 26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기념해 시내버스 4대로 시작됐다가 어린이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어 세 차례 노선을 연장, 현재는 79개 노선에 115대가 서울 전역을 누비고 있고, 서울을 넘어 광주광역시,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 서울버스의 이미지를 높인 일등공신으로 손꼽힌다.

올겨울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눈동자가 움직이는 타요버스에 빨간 코와 사슴뿔이 달린 루돌프 타요버스 26대가 8일(월) 운행을 시작 내년 1월 중순까지 달린다.

2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86표, 9%) : 시는 건물을 새로 짓기 보다는 기업, 종교, 단체, 개인과 협력하고 기존 건물과 공공건물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비용절감형 모델'로 '18년까지 1,000개소를 늘려 예산을 절감하고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육품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3위 '원전하나 줄이기' (1,366표, 7.8%) :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사업인 에코마일리지에 168만 명이 가입, 2년 반 동안 45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참여가 높아져 '14년 6월까지 원전1기에서 생산하는 200만 TOE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4위 '임대주택 8만호 공급' (1,273표, 7.3%) : 활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시의 여건을 감안해 공공원룸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을 개발해 지난 6월30일 8만호 공급을 달성했으며, 오는 '18년 6월까지 추가로 8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위 '서울둘레길 전 구간 조성' (1,267표, 7.2%) : 서울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8개 코스, 총 157km의 전 구간이 지난 11월 15일 개통됐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둘레길을 찾고, 서울둘레길 완주가 시민 도전과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걷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6위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1,259표, 7.2%) : 신촌 연세로에 서울시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과 보행량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감소하는 한편, 차가 사라진 거리에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7위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873표, 5.0%) :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 분야에서부터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발생원별 우선 순위에 따라 전방위적 저감사업은 물론, 베이징, 산둥성 등 동북아 주변 도시와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8위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 (804표, 4.6%) :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주의 위주에서 벗어나 상담 전문 '더함복지상담사' 260명을 투입해 6만9천여 가구를 지원했다.

9위 '여성안심택배' (678표, 3.9%) :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작년 7월 운영을 시작해 올해 10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10위 '시민청 운영' (517표, 2.9%) : 작년 1월 개관 이후 '토요일은 청이 좋아', '활력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서울시의 대표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올 한 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정책들이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도 더욱 시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비 비교,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글 정주형 기자

아파트 관리비 및 회계정보와 공사·용역정보 등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기존 PC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된다.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도에 아파트가 표출돼 원하는 아파트를 클릭만 하면 손쉽게 주변 아파트와 관리비 비교가 가능하고,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에코마일리지 등 부가정보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사이트 내에 서울시내 2천여 개 단지별 홈페이지가 새로 생긴다. 독립된 단지별 홈페이지에서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와 수입·지출 내역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회의록, 장기수선계획, 관리소 공지사항 등 정보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전면 개편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추진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워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16일(화)부터 PC(<http://openapt.seoul.go.kr>)와 모바일(<http://openapt.seoul.go.kr/mobile>)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동주택 관리비 등 알권리 제공과 편리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고도화 작업에 착수, 콘텐츠 개발 등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개편을 통해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①위치기반 지도서비스 및 부가정보 연계 ②스마트폰 모바일 웹서비스 실시 ③단지별 홈페이지 제공 ④맞춤검색 기능 강화 등이다.

첫째, 위치기반 지도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지도에서 손쉽게 아파트를 찾고, 정보를 보고 싶은 아파트를 클릭하면 단지정보(입주일, 시공사, 면적, 주차대수) 관리비 입찰공고 등 관련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표출된다. 특히, 시가 보유한 기타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격(매매, 전월세) 에코마일리지 정보를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이곳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웹서비스(<http://openapt.seoul.go.kr/mobile>)가 도입됐다.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면 관리비 비교 실태조사 결과 등 공지사항 확인 소통마당 아파트 지도검색 단지별 기본정보 제공 공사용역 입찰공고 및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천여 개 단지별 홈페이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회의록, 선거관리 위원회 공고사항,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질문과 답변(건의사항), 우리아파트 소개 및 상가홍보, 관리소 공지사항, 공사용역 입찰정보, 회계정보(관리비, 재무제표, 운영보고서, 잡수입·잡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또, 주민 간 소통할 수 있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커뮤니티(카페) 서비스를 제공,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 운영자가 되어 직접 카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현재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라는 카페가 운영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검색 기능이 추가되는 등 관리비 검색 기능이 확대됐다. 맞춤검색은 비교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 또는 지역의 상세 검색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 검색하는 방식으로, 관리비, 난방방식, 주차대수, 준공연도 등 검색항목이 세부화된 것이 특징이다. 박경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기능개편으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비교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더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계속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발굴·제공해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카페는 어떤 모임도 있다!

다스리 카페와 함께하는 2014 크리스마스 파티

만원의 행복



Merry Christmas

Who 다스리 카페 회원이면 누구나!

When 2014.12.19[FRI] PM7:00

Where 투나쇼핑몰 지하1층 모든아이 뷔페
(1호선 송내역 2번출구)

What 1.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의 시간

2. 즐거운 가족 레크리에이션

3. 어메이징 마술 퍼레이드

4. 산타할아버지 우리 카페에 오시네..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5. 맛있는 저녁식사

How 댓글로 참가 신청
(닉네임, 참가인원은 반드시 적어주세요)

<http://cafe.naver.com/sosoevent>